

BASF, 유엔 식량지원 사업 후원

한국BASF를 포함한 BASF 그룹은 2012년 연말 성금모금 캠페인을 통해 총 42만 유로(약 6억7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대부분의 기금은 BASF 재단(BASF Stiftung)을 통해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BASF 재단이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협력하는 것은 처음으로 전세계 기아 퇴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아이들의 학교 출석을 돕는 활동이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약 40%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다.

또한 BASF 재단은 해마다 연말 자선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을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고 BASF 재단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

<화학저널 2013/02/26>